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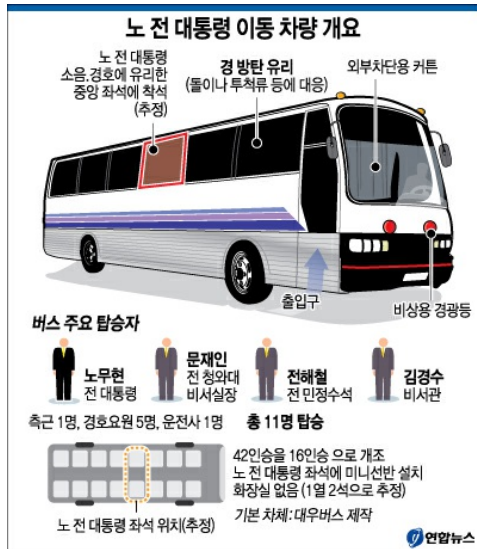
뉴스홈 | 최신기사

<盧소환> 봉하마을~서초동 따라가보니

송고시간 | 2009-04-30 14:59



박성민 기자
기자 페이지



전승엽 기자 kirin@yna.co.kr/ 20090430

고속도로 4개 갈아타며 5시간17분간 '007 상경작전'

<盧소환> 노선 바뀌... 종잡을 수 없는 상경길 (원원상주고속도로=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 사저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서초동의 대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탑승한 버스는 이날 오전 10시24분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다 낙동분기점에서 청원상주고속도로로 갈아탔다. 버스는 청원 등에서 다시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옮겨달 수 있으나 정확한 예정 경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노 대통령을 대운 버스는 이날 오전 8시2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출발, 10여분 가량 국도를 달리다 8시17분 진례 - 진영나들목을 통해 남해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이후 버스는 8시34분 칠원분기점에서 남해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중부내륙고속도로로 들어섰으며, 현재 경호 차량의 호위 속에 1차선을 유지하며 시속 80-90km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검찰행을 취재하기 위해 따라붙은 언론사 취재차량 8대는 순서를 정해 차례로 노 전 대통령이 탄 버스에 접근해 취재를 시도했다. 일부 언론사 차량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갓길까지 나가며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버스는 창문이 짙은 색으로 틴팅(Tinting: 유리창에 색을 넣어 빛 투과율을 줄이는 것) 처리돼 버스 안 노 전 대통령과 동승자들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버스에는 노 전 대통령 외에 변호를 맡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해철 전 민정수석, 김경수 비서관 등이 동석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를 따라 담당 구역별 고속도로 순찰대를 보내 릴레이 방식으로 버스를 에스코트하며 과도하게 접근하는 취재 차량을 저지했고 경찰청 헬리콥터도 차량 행렬을 뒤쫓으며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경찰은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 측에 KTX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는 대우자동차에서 만든 리무진 버스로 청와대 경호차에서 제공했으며 개조 작업을 통해 내부 좌석 크기를 키우고 테이블, 간이 화장실 등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오전 8시 노 전 대통령은 출발 전 봉하마을 사저 앞에서 침묵한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하다. 가서 잘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1010회
모토당첨결과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불합격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봄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김해~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임형섭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일행과 취재진이 함께한 `1천리 상경길'은 `숨바꼭질'의 연속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30일 오전 8시2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출발한 이후 4개의 고속도로를 갈아타면서 총 374km를 달린 끝에 5시간17분만인 오후 1시19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했다.



노사모 회원과 취재진이 오직집 가운데 봉하마을 사저 현관에 모습을 드러낸 노 전 대통령은 간단한 심경을 전한 뒤 청와대 경호처가 제공한 버스에 올라탔다.



<盧소환> 삼엄한 경호 속 입장 휴게소로

(천안=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30일 낮 12시10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 버스가 경호차량에 둘러싸인 채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입장휴게소로 접어들고 있다.

hwangch@yna.co.kr

공식적인 차량 행렬은 노 전 대통령이 탄 버스를 비롯해 승용차 2대와 승합차 2대, 경찰 순찰차 2대, 미니버스 1대 등으로 구성된 경호차량과 사전에 취재허가를 받은 통신사와 신문, 방송사 차량 8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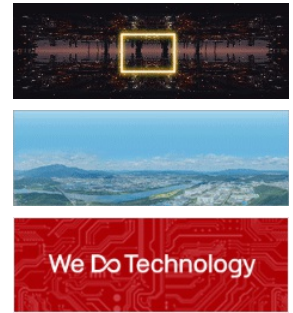
13년6개월 만에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빅 뉴스'에 대한 언론의 취재 경쟁은 노 전 대통령이 탄 버스가 출발 14분 만에 진례·진영IC를 통과해 남해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식 취재차량들은 순서를 정해 버스 옆으로 차례로 이동하면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기로 미리 협의를 했지만, 막상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8대의 취재차량들은 시속 100km가 훌쩍 넘는 속도로 버스 옆에 붙기 위해 앞서거나 뒤서거나 질주했고, 일부 차량은 버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자 갓길을 내달리는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공식 취재차량 이외에 다른 언론사 차량들도 속속 고속도로 위의 급박한 취재 대열에 합류했다.

봉하마을 경비를 담당한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의 차량 행렬과 허가받은 취재차량이 빠져나간 뒤 나머지 차량들의 출발을 20여분간 막았는데도 어느새 노 전 대통령의 버스 주위에는 30여대의 차량들이 따라붙었다.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엄중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현장영상> 노 前 대통령, 충북 보은 통과 (서울=연합뉴스) 30일 오전 11시 15분께 노무현 전 대통령 일행을 태운 버스가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로 보은 보청교 부근을 지나가고 있다. <촬영:김윤호 VJ(충북취재본부), 편집:조성글 VJ>

하지만 버스 유리창이 모두 짙은 색으로 틴팅(Tinting: 유리창에 색을 넣어 빛 투과율을 줄이는 것) 처리돼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험하기 짝이없는 취재경쟁도 잠시 시들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버스는 오전 8시34분 칠원분기점에서 빠져나가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들어선 뒤 시속 80km 안팎의 속도로 차분하고 느긋하게 서울을 향했고 취재진도 한동안 차분하게 뒤를 따랐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차량이 어느 경로를 선택할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버스와 취재진 사이의 '조용한' 추격전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盧소환>보청교 진입한 대형 버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태운 버스와 취재차량 등이 30일 충북 보은과 청원을 잇는 보청교에 진입하고 있다. 2009.4.30. ywy@yna.co.kr

버스가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김천분기점을 그대로 지나치게 되자 취재진 사이에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끝 지점인 여주분기점까지 간 뒤 영동고속도로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탄 버스는 그런 취재진의 예상을 빗긋기라도 하듯이 낙동분기점에서 청원-상주고속도로를 선택했다.

그제야 버스는 청원 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서 서울로 향할 것이 거의 확실해졌지만 문제는 휴게소였다.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6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0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8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정?
48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8

뭐하고 놀까? #홍→



<盧소환>꼬리무는 순찰차, 취재차량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태운 버스를 따르는 취재차량과 순찰차가 충북 보은과 청원을 잇는 보청교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2009.4.30.

ywy@yna.co.kr

의전용으로 내부가 개조된 버스이긴 하지만 탁자만 하나 설치돼 있을 뿐 화장실은 없어 탑승자들이 용변을 해결하려면 휴게소에 들러 수밖에 없었던 것.

청원-상주고속도로 중간 부분의 속리산휴게소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취재진을 긴장시켰던 버스는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한 직후 청원, 천안삼거리휴게소를 그냥 지나쳤고 출발 4시간20여분 만인 낮 12시20분 입장휴게소로 진입했다.

버스가 주차장에 선 뒤 문재인 변호사와 김경수 비서관이 내리자 기자들은 화장실까지 따라가 노 전 대통령의 표정과 심경, 버스 안에서 나는 얘기 등을 물어봤고 방송 기자들은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버스는 15분 정도의 짧은 휴식 이후 시속 100km 이상으로 속력을 냈고,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추격전도 맹렬해졌다.

버스 뒤에 일렬로 늘어선 수십대의 차량들은 간격이 1~2m밖에 되지 않아 누군가 급제동을 하면 연달아 추돌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아찔한 장면이 한참동안 이어졌지만 별다른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후 1시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한 버스는 양재IC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갔고, 경찰이 취재 차량의 접근을 차단하는 동안 우면산터널을 지난 뒤 대검 청사로 여유롭게 들어가면서 험난했던 상경길을 마무리했다.

min76@yna.co.kr

관련기사

<盧소환> 언론사 취재열기 '후관'

<盧소환> 검찰 출석까지 시간대별 상황

檢, 盧 전 대통령 소환..본격 조사

<盧소환> 두 盧 전 대통령 비교해보니

<盧소환> 리무진 버스에 신발 보관 투척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4/30 14:59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듯 열똥... 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유튜브 채널



SNS



뉴스 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맛충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뉴스+ 이슈툰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환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지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계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ws